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6월 2일(금)  
(음력 5월 8일)

Пятница

2 июня 2017 г.

№ 21(11673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한국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 사할린주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합동 연주회가 지난 5월 26일 저녁 7시에 스톨리차 비즈니스 센터 콘벤셜 홀에서 열렸다.

(관련 기사 2면)

(이에식기자 촬영)

## 단신

### 모스크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지난 30일(화) 모스크바 민족회관에서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1937년 - 과거, 현재와 미래. 고려인들 러시아 세계의 일부> 국제과학실용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컨퍼런스는 전 러시아고려인협회, 경제대학 과학연구소(모스크바), 러시아주재 대한민국대사관, 모스크바 민족회관 주최로 진행되었는데 학술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러시아 여러 지역의 학자들과 사회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대회에서 소개된 주제 발표들이 다양했다. 특히 고려인 문제를 많은 연구 해오는 손잔나 (모스크바), 김 갈리나(오렌부르크), 부가이 니콜라이(모스크바), 한 알레리(우즈베키스탄) 교수 등의 발표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 사할린주민들, 뱃채고르스크 지진희생자 추념

지난 5월 28일 사할린에서는 뱃채고르스크의 강진 희생자들을 추념했다.

22년전 1995년 5월 28일 01:04에 사할린 오하 북부에서 강도 7의 지진이 발생하여 뱃채고르스크부락은 일시에 모두 파괴되어 버렸다. 3197명의 주민들 중에서 2000여명이 사망했다. 이날 철도역 근처 설치된 뱃채고르스크 지진희생자 추념비 앞에서 진행되는 추도식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스크 대주교 치훈이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기도를 한 후 헌화했다. 추도식에는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지사를 비롯해서 주·시정부 관계자들, 주두마의원들, 사회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 안톤 자이체브, 사할린주정부 부수상으로 임명

나탈리아 스타르체와 부수상의 사임으로 사할린주정부 사회정책담당 부수상직이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할린주 스포츠청소년정책부 안톤 자이체브 장관을 부수상직에 임명했다. 신임 부수상은 사회복지·보건·교육·문화·스포츠관광 분야, 청년정책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사할린주 스포츠청소년정책부 장관직에는 본부의 부장관이었던 세르게이 부렌코브가 전담하게 될 것으로 밝혀졌다.

### 사할린, 남쿠릴 공동 경제 활동으로 일본 경제설명회 개최

지난 31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에이이찌 하세가와 일본 총리의 특별 참사관이 단장으로 한 일본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남쿠릴 공동 경제활동 문제로 경제설명회를 가졌다. 외교관, 비즈니스맨, 공무원, 재정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에 관한 34개 제안안을, 사할린 측은 29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양측은 기초계획안을 작성하고 6월말-7월 초에 직접 남쿠릴에서 경제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 모스크바, <러시아이스키에 코레이치> 신문 20주년 기념

지난 31일(수)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이스키에 코레이치>(대표 쉐 올렌진)지 20주년 기념행사들이 펼쳐졌다. 이 행사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극동 지역(연해주와 사할린) 등지에서 고려인 언론사 대표들이 초대되어 <러시아어로 된 고려 매스미디어: 역사, 현재, 미래>란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박로백 특명전권대사, 이와센초브 글레브 대한민국주재 러시아연방 특명대사(2005-2009년), 전러시아고려인협회 회장인 조 와실리 러시아대통령 소속 민족관계위원회 위원 등이 행사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러시아이스키에 코레이치>지의 민족언론으로서의 주요 역할을 강조하여 따뜻이 축하를 하였다. 또한 귀빈들은 <러시아이스키에 코레이치>신문을 비롯하여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발행되는 고려인 언론매체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컨퍼런스의 참가자들은 이날 한국과의 관계에서 언론의 역할, 현재 고려인 언론매체들의 상황 등을 논의했다. 고려인 매체 대표들은 특히 함께 할 수 있고 공통점이 있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한 만족감을 표명했다.

이날 저녁에는 <러시아이스키에 코레이치> 20주년 기념 행사로 <한려 우정의 교량> 클래식 음악 갈라콘서트, 러시아인과 고려인 화가들의 전시회 개막식, 청소년들의 춤 플래시몹이 펼쳐졌다.

행사는 <러시아이스키에 코레이치>, 전러시아고려인협회와 러시아주재 대한민국대사관(한국문화원)이 주최했다.

(본사기자)

## 사할린주, 농기업체 개발, 육류 및 채소 가격 인하

사할린주에서는 매달 필수품인 식품 가격의 모니터링에서 최근에 공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지역들 중 사할린주에서 일반식품 가격의 인상률이 가장 낮다고 사할린주 무역 및 식품부 인나 파블렌코 장관이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금년 4월 가격인상 지표를 비교해보면 사할린주는 러시아연방의 전체 지역들 중 85위로, 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사하공화국(야쿠치야), 마가단주, 추코트카 및 캅차트카 지역이다. 프리모리예와 하바롭스크 지역은 76.8위에, 유대자치주는 82위였다. 인나 파블렌코 장관은 "사할린주에서는 냉동 어류,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오이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이같은 가격형성에 주요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역 농산업체 생산성 개발과 시장에서의 소비량 증가에 있다. 게다가 수산업체와 함께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저렴한 물고기>프로젝트가 또한 가격을 정상화하고 인하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 하나의 현저한 실례로 채소가격의 하락이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채소의 다수가 사할린산으로 감자·파·상추 등 채소가 사할린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할린주 농기업 발전을 위한 주정부의 정책의 결과다."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사할린 북부지역과 쿠릴섬들에서 식품가는 아직 비싸다. 원인은 운송비와 비싼 전력 때문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주정부는 북부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식품 수송비를 보충하고 소매업체를 위해 전력에 대한 특별단가의 설정을 결정했다."고 회의에서 밝혔다.

새고려신문

## 2017년 하반기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하반기(7-12월)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제 3회 사할린·한국 합동연주회

관객들은 모차르트의 레퀴엠에 깊이 빠져

한국의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 (키도(KYDO:Korea Young Dream Orchestra))) 30명이 세 번째 사할린을 찾았다.

사할린주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유즈노 사할린스크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합동 연주회가 지난 5월 26일 저녁 7시에 스톨리차 비즈니스 센터 콘벤설 홀에서 열렸다. 한국 농어촌희망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랫츠런(Let's Run)과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 한국관의 후원으로 공연이 이뤄졌다.

푸르른 5월, 신록의 신선함이 가득한 계절, 꿈과 이상으로 가득찬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농어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한국의 25개 지역에서 선발된 음악 재능 청소년들로 경남 함안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지준우 씨와 함께 했다. 공연 개막에 인사말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세르게이 나드사진은 농어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사할린 청소년오케스트라와의 의미있는 합동 연주회에 기쁨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옥분 씨의 통역으로 농어촌희망재단 심윤종 이사장도 인사말을 전했다. 사할린은 정용동포의 아픔이 있는 곳으로 그 후손들을 위로하고 농어촌지역청소년의 역사의식을 함양하며 한·러 청소년들의 음악교류를 위한 세 번째 연주회를 맞이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관리국장 이리나 게라시모와는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의 기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미 사할린에서 세 번째 열리는 공연을 통해 양국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국가, 민족, 언어를 너머 음악으로 서로의 꿈과 정서를 교환하는 장이 되었고 연주는 연주가들에게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무대가 되고 있었다.

첫 두 곡은 지준우 지휘자 아래 키도(KYDO)가 연주했다.

첫 곡으로는 영국 작곡가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 중 '세인트 폴'>이 연주되었다. 켈트풍의 경쾌함이 넘치는 곡으로 시작하여 둘째 곡은 헝가리의 작곡가 벨라 바르토크의 <루마니아댄스>가 연주되었다. 난해한 곡으로 이름난 곡이지만 청

년들은 그 짙시풍의 곡을 잘 소화해 내어 많은 갈채를 받았다. 셋째와 넷째 곡은 빅토리아 유즈마노바의 지휘로 사할린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다. 곡목은 우크라이나의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브의 <로미오와 줄리엣 - 발레> 중 '기사의 춤'이었다. 이 곡은 1막에서 로미오가 초대받지 않은 무도회에 몰래 참석하여 줄리엣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곡이라 웅장함, 격렬함과 은밀함이 느껴지는 곡이다. 넷째 곡은 그루지야의 작곡가 아람 하차투리안의 레르몬토프의 <가면 무도회> 중 '왈츠'를 연주했다. 모두가 활기차고 박진감이 넘치는 곡들로 청소년들의 패기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 엿보이는 곡들이었다. 청소년들의 연주에 갈채가 끊이지 않자 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합동으로 앙코르 곡을 연주했다.

지준우 지휘자와 함께 배지혁(함안중 2학년)군의 첼로 독주와 협연으로 한국의 가곡 <그리운 금강산> 연주는 금강산의 봄에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연주되었다.

둘째 앙코르 곡은 빅토리아 유즈마노바의 지휘로 <라데츠키 행진곡>이 연주되자 객석은 처음부터 박수를 치며 흥겨움에 젖는 관객들도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두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챔버 오케스트라가 합류하면서 무대는 가득차고 더불어 사할린예술전문화관리지의 합창단이 서면서 장엄한 무대가 이어질 거란 예상이 들었다.

다섯째 곡은 장엄한 모차르트의 <레퀴엠>(: 진혼곡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이 연주되었다. 지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챔버 오케스트라의 아르나자린 찰리 지휘자가 했다. 사할린에서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초연이라고 했다. 레퀴엠은 모차르트가 죽기 직전까지 곡을 쓰다가 결국 미완성으로 남기고 죽은 곡으로서



모두 9곡이 연주되었다. 사할린에서 희생된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할린한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듯한 장엄한 미사라도 같았다. 연주와 합창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홀은 거룩한 곡으로 가득차면서 관객들은 깊이 레퀴엠에 빠져들었다. 연주가 끝나자 '브라보' 소리가 연신 끊이지 않았다. 자리를 뜰 수 없을 정도의 감동으로 박수가 울려 퍼지며 성공적인 연주에 모두가 만족해 했다. 연주 후 경남 함안에서 선발된 배지혁 군의 소감을 들었다. "이번 러시아 연주가 뜻깊은 것은 무엇보다 말은 통하지 않았어도 러시아 청소년들과 음악으로 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학생들과 곡을 연주할 때 그들에게는 좀더 섬세한 정서가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준우 지휘자도 이번 연주 선곡은 대학생 이상이나 전문가들이 연주하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키도가 잘 연주해 준 데에 만족한다는 표현을 했다. 그리고 문득 민태원의 수필 <청춘예찬> 중 글귀가 떠오른다.



'꽃밭에 속잎 나고, 가지에 싹이 트고, 꽃 피고 새 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을 얼음 속에서 불러내는 것이 따뜻한 봄바람이다. 인생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러 보내는 것은 청춘의 꿈은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 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理想)의 꽃이 피고, 희망(希望)의 날이 뜨고, 열락(悅樂)의 새가 운다...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향악이다. 뼈 끝에 스며들어가는 열락(悅樂)의 소리다...'

아름다운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의 합동 연주로 이루어진 클래식 한마당이 사할린, 러시아 전역, 온 세계로 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취재: 박혜신/글, 이에식/사진)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장애인 및 노인 복지회관 입소자들에게 컴퓨터교육 시켜

유즈노사할린스크 장애인 및 노인복지회관 입소자들이 <컴퓨터 기초과정> 수료증을 받았다.

<착한 일에 서두르세요.>란 자선 이니셔티브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컴퓨터는 단순하다>프로젝트는 <사할린 에너지>회사의 젊은 직원들이 발의하여 그룹을 구성하고 기획을 작성한 가운데 실행하게 되었다.

올해 3월부터 주일마다 복지회관 입소자들과의 수업이 시작됐다. 이들에게 컴퓨터와 최신 통신 방법을 다루는 기본을 가르쳐주며 3개월간 매주 토요일 회사 직원들은 이론 및 실용 수업을 실시했다.

프로젝트실행 덕분에 수강생들은 컴퓨터 장비를 알게 되었고, 텍스트를 다루며, 메일·소셜 네트워크 활용법, 인터넷 쇼핑과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사할린 에너지>회사의 젊은 직원들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첫 프로젝트라고 회사 홍보실은 전했다.

Постояльц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ма-интернат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научи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компьютером

Постояль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ма-интернат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получили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прохождении курса "Основы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Проект "Компьютер - это просто" разработала и реализовала инициативная группа молодых сотрудников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Спешите делать добро".

В марте этого года начались еженедельные занятия с постояльцами интерната. Их обучили основным навыкам владения персональным компьютером и совреме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коммуникаций.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ех месяцев каждую субботу сотрудники компании проводили теоретические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его участник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устройством компьютера, научились работать с текстом, пользоваться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ой, социальными сетями, совершать интернет-покупки, приобрели навыки работы со смартфонами и планшетами.

Это первый проект молодых сотрудников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которые объединились для помощи людя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омпании.

사할린주민, 꿈을 피해 구멍가게로 도피

5월 26일 코르사코브 구역에서 꿈의 습격을 당할 뻔한 사고를 현지 총 산림관리장 나탈리아 돌가노와가 전했다.

이 사건은 코르사코브시와 프리고로드노예 사이에 위치한 개인주택 마을 네차예카에서 이른 아침에 발생했다. 현지 주민이 꿈을 다차우차스토크 근처에서 마주치자 그는 꿈을 보고 뛰어 도망가다가 그 시간에 이미 열려있던 구멍가게로 숨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꿈은 구멍가게 옆에서 땅을 파다가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이제 그는 꿈을 보면 구멍가게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산림부 관리인들은 아직 짐승의 나이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고 있다. 증인의 말에 따르면 꿈은 평균 크기였다고 한다. 돌가노와 총 산림관리장은 현장에 발자국이 남아있었지만 땅이 말라서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돌가노와 산림관리장은 "아침 8시에 사건 발생에 대한 신고가 경찰로 들어와 경찰은 단일 콜센터로 전하고 그 다음 센터 직원들이 이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꿈이 공격적으로 행동할 경우에만 꿈에게 총을 쏘도록 되어 있다. 산림부 직원들은 이미 개인주택 주민들과 얘기하고 짐승을 만날 시 안전대책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고 전했다. (8면에 계속)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KYDO)와 사할린  
청소년오케스트라 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것

한국 농어촌희망재단 한순석 팀장과의 인터뷰

사할린에서 현지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유즈노 사할린스크 챔버 오케스트라와 합동연주회를 가지기 위해 지난 24일 한국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키도KYDO)가 지난 24일 사할린을 방문했다. 키도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는 한국 마사회 소속 농어촌희망재단이다. 본사 배순신기자는 키도의 실제 활동을 담당하는 본재단 한순석 팀장과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제3회 키도와 사할린 오케스트라와의 합동 연주회가 대한호 속에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우선 농어촌희망재단이 키도 농어촌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시고 3년 전에 키도 청소년들이 사할린을 어떤 동기로 처음 찾으셨는지요?

—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Korea Young Dream Orchestra)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키도(KYDO) 사할린 연주회를 추진한 이유는, 사할린은 강제징용동포의 아픈 과거가 있는 한이 서린 땅입니다. 사할린 동포의 후손들에게는 위로를 전하고, 키도(KYDO)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희망재단에서 키도의 학생들이 사할린 학생들 간의 교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할린 학생들이 여러 번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대규모 합동연주회에도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할린 청소년을 초청한 동기와의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럽의 클래식 음악을 키도(KYDO)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곳이 러시아 극동부 연해주와 사할린으로 판단하였고, 한국의 키도(KYDO) 청소년들과 러시아 사할린 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국 청소년들의 친선 도모는 물론 음악적인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3년째인 올해는 사할린주정부와 지속적인 음악캠프 상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이번에 사할린 측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체결한 협력 의향서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사할린 청소년 교향악단과 키도(KYDO)와의 음악캠프 협약서 내용은, 장기적으로 선린관계와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에서 청소년 음악캠프를 개최하며 양국의 청소년 음악캠프를 개최할 때마다 비용부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표단을 보내는 쪽은 대표단의 항공비와 의료보험비만 부담하고, 대표단을 받는 쪽은 대표단의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통역비, 문화관광비 및 긴급 응급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올해도 사할린 청소년을 음악캠프에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키도와 사할린 청소년의 교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2017년 키도(KYDO)합동캠프는 2017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이고, 합동연주회는 2017년 8월 9일 오후 7시 성남아트센터에서 금난새 예술감독의 지휘로 개최할 예정이며 사할린 청소년은 11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20명에서 25명 가량의 한국 키도와 러시아 사할린 청소년들이 한국과 사할린에서 각각 개최하는 음악캠프에 참가하도록 하여 키도와 사할린 청소년들의 음악캠프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키도 청소년들과 사할린 어린 음악가들 간의 성공적인 교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농어촌희망재단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충북 음성군, 제8회 전국 사할린동포 한마음 대회 개최

사랑과 나눔의 정신문화 축제,  
사할린동포의 만남

한국 충북 음성군은 지난 5월 25일(목) 음성을 설성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고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국 사할린동포 한마음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가 주관하고, 음성군이 후원으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회장 서정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행사를 열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혔다.

음성지구협의회는 해마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사할린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랑과 나눔의 정신문화 축제를 즐기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마음을 힘을 합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7면에 계속)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사할린에서 함께 온 분들은 그럼 어디서 만나세요?

김임순 — "처음에는 서로 다른 도시에서 왔으니까 안면 익힐라고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집에 왔다 갔다 했지. 그때만 해도 10년 전이니까 젊잖아. 이젠 이빨 아프지 어데 아프지, 뭐 아픈 데밖에 없으니까 병원 쫓아다니다 보면 친구하고 대화할 새도 없어. 그저 같이 점심 먹고 한 30분 앉아서 누군 아프단다, 누군 병원에 갔단다, 누군 어떻단다 떠들다 각자 자기 집에 가는 거지. 전에 힘 있을 때는 점심 먹고 나면 야, 커피라도 한잔 마시자 우리 집에 가자 그랬는데, 이젠 못해. 힘이 없으니까."

늙고 병드니 자녀 생각 더 간절해

고국에서 변한 것은 단지 강산만이 아니었다. 자연을 밀어낸 자리에 높고 큰 건물이 올라간 만큼, 사람 사이에 놓인 장벽도 높아졌다. 도로를 점령한 차들이 저마다 속력을 내며 달리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잃고 오로지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빨라졌다. 그리고 또 하나.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정작 콩 한 쪽도 나눠먹던 옛 인심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옆에서 누가 굶고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다. 사할린에서는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울컥 했었는데. 그때 그 단어에서 배어나오던 파스함과 아늑함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현실은 이렇게도 삭막해진 것인지...

그렇다고 사할린에서 귀국해 살아가는 분들이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각각 지나온 역사가 다르니, 서로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어느새 늙고 병들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당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현실이 암담하게 느껴진다고. 더욱이 몸과 마음이 약해질수록 사할린에 두고 온 자녀들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니 속이 타들어가는 걸 어쩔 수 없다.

"내가 2001년에 여기를 왔거든요. 근데 뭐이 문제인가 하면, 처음에 올 적에는 좋았는데 이젠 나이가 먹어서 내일모래 여든이니 죽을 일이 걱정된다는 거야.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합할 형편도 안 되고, 만에 하나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해도 한국말을 모르니까 문제고. 그러니 우리가 도로 돌아가서 죽을 형편이야.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죽는다고 하지만 말이 그렇지. 자식을 거기에 놔두고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다들 그게 큰 걱정이라고."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내 컷가엔 한문형 선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맴돌았다. 이제 더 늙고 병들면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 자녀 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보니 사할린 한인들이 왜 영주귀국을 현대판 고려장이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고향의 한인만을 귀국 대상으로 정해놓은 현재의 정책을 따르자면, 자녀와는 부득이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누군들 고국의 땅이 그리지 않고, 또 어느 누군들 제 핏줄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을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등촌동 아파트를 나오는 길.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지는 해의 붉은 광채가 서쪽하늘을 물들이는 풍광을 지켜보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군가는 사할린에서 본 것과 꼭 닮은 저 노을빛 아래서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할 거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끔거렸다. 내가 비록 그들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다 해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해도...

내 가슴에 고인 이 슬픔을 어찌할까

'이중징용' 피해자 유가족 안명복

안산 고향마을에 들어서면, 뭔가 여느 아파트와는 달라 보인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는 러시아어로 된 간판과, 뛰어노는 아이들이 없어 행한 놀이터, 그리고 텅 빈 주차장에 이는 마른 바람까지. 고향마을이라는 이름이 지닌 정다운 느낌과 달리 조금은 쓸쓸함이 감도는 풍경을 마주하다 보면, 여기서 살아가는 사할린 한인 분들의 내면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내가 2001년에 여기를 왔거든요. 근데 뭐이 문제인가 하면, 처음에 올 적에는 좋았는데 이젠 나이가 먹어서 내일모래 여든이니 죽을 일이 걱정된다는 거야.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합할 형편도 안 되고, 만에 하나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해도 한국말을 모르니까 문제고. 그러니 우리가 도로 돌아가서 죽을 형편이야.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죽는다고 하지만 말이 그렇지. 자식을 거기에 놔두고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다들 그게 큰 걱정이라고."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 ИСТОРИЯ КОРЕИ



Разобрав и изучив структуру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ремен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давайте затронем такой важный вопрос как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Для чосонских ванов она была характерна миролюбивой стратегией (о слабости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того периода мы с вами уже говорили) и в основном сводилась к обороне от японских и маньчжурских завоевателей. То положение, в котором находился Чосон в принципе исключал 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экспансию – слишком сильные и агрессивные соседи ему достались.

Глав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с которым Корея того времени должна была выстроить отношения, был, разумеется, Китай. Сила Китая, его мощь, а также культурное влияние грозили Чосону потере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а от чосонских ванов требовали известной доли гибкости, осторожности и внимания. Ваны выбрали в качестве стратегии политику «садэ».

«Садэ» (사대) - в дословном переводе означает «служение великому», «служение сильнейшему» и предполагала политику признания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роли кита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как верховного властителя ойкумены. Чосон становилась верным вассалом Китая, признавала его верховенство над чосонским ваном. Каждый ван, вступая на престол, «запрашивал разрешение» на коронацию у кита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Правда стоит сказать, что китайский император понимал условность этого «служения» - все чосонские ваны утверждались им без каких-либо проволок, даже те, что пришли к вла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откровенного госпереворот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литика «садэ» стала почти что ругательством. Это и естественно – д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цев унижите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родины в прошлом – сложный и непростой вопрос.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тоит учесть, что, во-первых, люди (включая элиту) прошлого не относились к этому столь болезненно, а во-вторых, этот, пусть и неравноправный, союз был единственным возможным решением того времени для чосонских ванов.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с Китаем были залогом не только ликвидации опасности вторж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могучего соседа, но и помощи его против других иноземных захватчиков. Китайские власти и сами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черкивали, что Китай защитит Корею в случае опасности, и даж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поступал.

Помимо требования «утверждения» ванов, политика «садэ» не так много требовала от Кореи. Обычно она выражалась в выплате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дани, когда корейское посольство отправлялось в Поднебесную с богатыми подарками к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датам.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эти подарки в официальных отчетах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меновались «данью», на деле, корейские посланцы в ответ получали богатые «пожалования», зачастую ничуть не уступающие в цене «дани». На практике, как мы видим, это была скорее форма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орговли, замаскированная под формальный вассалитет.

Иногда (достаточно редко) китайские посольства также наносили ответный визит в Чосон. Визит и прием китайского посла чосонским ваном обставлялся с большой помпой и церемониалом, однако чиновникам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и этом тайно рассылались указания не распускать язык и не показыва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документы «сюзеренам».

Как мы видим, политика «садэ» носила весьма условный характер. Правители обеих стран были довольны – чосонские ваны за формальное признание «верховенства» получали защиту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при этом практически ничего за это не платя), китайские императоры – очередные баллы в свою копилку авторитета «единственного повелителя Поднебесной».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устраивала все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лиц.

С эт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уместно сравнить политику «садэ» с монгольским игом на Руси. Русь от монголов зависела в большей мере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урон от выплаты огромной дани и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набегов монголов в «воспитательных целях» как ответ на восстания)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лучение «ярлыка» на великое княжение, а также подогревание монгольскими правителями междоусобицы на Руси) планах. Культурное развитие же Рус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испытывало влияния монголов, религия (в лице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как системообразующая культурная матрица оставалась независимой, контакты с монголами носили эпизод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было никакого «заимствования» на бытовом уровне, как это час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двух соседствующих цивилизациях. У Чосона была ситуация обратная русской – пр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заметном для глаза уроне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лане и отсутствии какого-либо контроля в плане политическом, культурное «служение» расцвело в полной мере, начиная от кита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несмотря на изобретение хангыля, он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использовался), заканчивая церемониалом, религией, философией, искусством и т.д.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1 июня наша газета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тметила свой 68-й по счету день рождения. В нынешнее время печатным СМИ всего мира непросто выживать, не говоря о национальных изданиях. Уникальность нашей газеты, так же, как и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она выходит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Издавать газету еженедельно силами малень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задача очень непростая. Языковые трудности, нехватка журналистов, финансов – самые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знакомы мног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газетам, и с которыми наш коллектив сталкивается ежедневно.

Но существует верный преданный читатель, ради которого мы работаем. И это не пустые слова. Мы знаем точно, что нашу газету ждут и во многи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и в Москве, 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уда на ПМЖ уехало более 4000 пожил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в самые трудные времена именно читатели вставали на помощь газете, организуя сбор средств в поддержку единственного печатного изд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громное Вам спасибо за это, дорогие наши читатели.

Виктория Бя, гл.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 ОТ «КОРЕЙСКОГО РАБОЧЕГО» ДО «СЭ КОРЕ СИНМУН»

### Краткая справк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дакции

1 июня 1949 г. в Хабаровске вышел первый номер газеты «Чосон нодондэ»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Читателями газеты стали семь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от момент в Хабаровском и Приморском края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т так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сильно завезенных на остров японцами и лишенных возможност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получило возможность читать прессу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В сентябре 1950 г. редакция переезжа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основной читательской аудиторией становятс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1961 г. газета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Ленины гилло»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Спустя тридцать лет, с уходом в прошлое советской партийн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появилось современное название –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До 1991 г. газета выходила 5 раз в неделю, 4 полосы (половина формата газеты «Правда»), издавалась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егодня восьмистраничный еженедельник освещает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ую, социальную и культурную жизнь региона, знакомит с событиями и проблемами, касающимися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на Сахалине, а также националь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и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газета уделяет межэтниче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вопросам толерантности, проблемам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опросам возрождения,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елика роль издания в поиске членов разрозненных семей.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ыпускается специальная «Школьная страничка», публикуются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1995 г. в газете появилась первая полоса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новости и общественно-культурную жизнь Коре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ыпускается три страницы. В них, помимо вестей из Коре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а также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В конце восьмидесятых - начале девяностых годов, после Сеульской олимпиады-88,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ся самый настоящий бум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мые лучшие специалист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аботали в редакции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Так журналисты газеты стал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различных вечерних курс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ыли открыты курс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и при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Редакция организовала классы-факультатив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ах. Также журналисты газет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разработке и написании 1-го на Сахалине школьного учебника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течение 15 лет с 1993 г. редакция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ла среди читателей газеты литературный конкурс «Мугунхв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2006 г. редакция впервые провела конкурс сочинений «Бекильдэ»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изучающих этот язык. В 2009 г. конкурс «Бекильдэ» был посвящен 60-летию газеты. В преддверии 65-летия газеты был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н конкурс сочине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о уже в другом формате.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ведет и общественно-организатор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июле 1990 г. редакция принимала на Сахалине большую группу



(около 40 чел.)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евцов.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ервого на Сахалине концерт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была телекомпания MBC, соорганизатором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ла редакция нашей газеты. Это было сенсационное событие. Чтобы увидеть воячию этот концер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ъехались корейцы со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прилетели два чартера с Хабаровска и Владивостока.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стадион Спарта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рал больше двадца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Здесь же состоялись незабываемые встречи разрозненных семей. Все это было до подписа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Редакция стала инициатором 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литературных встреч с писателями Анатолием Кимом (2010 год) и Александром Каном (2014 год),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с корееведом, профессором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кмин Андреем Ланьковым (2009 год). В 2015 г. с помощью редак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смогли встретиться с писателем, драматургом, режиссером-постановщиком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н Маном.

В мае 2014 г. редакция ста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 детских рисунков «Евразия: дорогой мира» (участники – школьники Сахалина,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ученики корейских школ Японии).

В 1974 году газета награждена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СФСР. В 1999 г.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награжден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4 г.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также отмечен грамотам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ями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статистики РФ,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организаций.

Журналисты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е раз являлись лауреатами и дипломантами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им. А.П.Чехова на лучшую журналистскую работу года.

Газета являлась участни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Пресса-2007», «Пресса-2008». В 2007 г. газета была отмечена Знаком отличия «Золотой фонд прессы», именных дипломов Знака отличия удостоились пятер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дакции.

Газет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также посредством Интернета. Есть блог на корейском сайте, газету в формате pdf можно смотреть на российском сайте Ариран.ру.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прос о создании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сайта газеты.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Россия и Китай настаивают на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КНДР через диалог

26 мая глава МИД КНР Ван И посетил Москву, где он встретился со своим российским коллегой Сергеем Лавровым. Они обсудили разные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интересов двух стран, включая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главы МИД двух стран выразили протест против любых негатив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и высказываний, которые способствуют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ни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и недопустимость применения оружия ни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указав, что споры можно реши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через диалог. Ван И заострил внимание на заявлении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о том, что относительно КНДР нужно совмещать санкции и переговоры, но в итоге сама проблема должна решаться мирно через диалог. Как указано на сайте МИД РФ, Сергей Лавров отметил, что сейчас в Вашингтоне, Сеуле, и даже в Пхеньяне стали звучать голоса в пользу того, чтобы возобновить контакты. Однако каждая сторона выдвигает условия, которые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кто-то другой должен сделать первый шаг. Министр выразил поддержку предложению Китая делать шаги параллельно. То есть Север прекращает развитие своей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 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США одновременно идут на отмену своих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Стороны также выступили против размещения системы ПРО ТНААД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д предлогом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НДР.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одобрило возобновление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менов с Севером

26 ма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первые после начала работы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ыдало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сещ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членами гуманита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азрешение было выдано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гуманита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Ури минчжок соро топки ундон» или «Движение помощ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с Севера» для передачи медикаментов для борьбы с малярие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Ли Ю Чжин заяв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храняет позицию о жестком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провокациям. Одновременно решено гибко подходить к вопросу гуманитарных контактов при условии соблюдения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нкций, введенных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Наканун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общил, что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находятся 19 проектов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едложенных различными гуманитар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 В РК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внештатников

Госучреждения, находящиеся в ведомств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намерены перевести 30 тыс. внештат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штат. 26 мая руководства 41-го учреждения провели экстренную встречу, на которой обсуждалась политика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переводу в штат контрактн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просто долгосрочных наем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госсекторе.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рассмотрели статистику и дета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мер.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том, что каждое учреждени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берет способ их перевода в штат. После начала работы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первым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едомств к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по внештатникам приступ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чного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Среди ча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к этой политик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SK Broad Band и Lotte.

## В статуе Будды нашли книгу с буддийской сутрой

В голове статуи Будды, относящейся к эпохе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нашли буддийские писания. В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м институте буддийского наследия сообщили, что находка была обнаружена при исследовании статуи сидячего Будды из храма Сильса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с помощью трёхмерного компьютерного томографа. В итоге в голове был замечен предмет, который,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позже, оказался книгой.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она была написана в эпоху династии Корё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14-го века. Бумага сделана из коры тутовника. В книге изложена Сутра о сущности трансцендентально-мудрого совершенства. Текст написан серебряным порошком, смешанным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клеем. Учитывая это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книгу напис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ысших слоёв общества того времени. В институте однозначно признают культурную ценность находки, которая может войти в список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заявку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а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RKI)

## Реквием в исполнении KYDO и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покорила публику

26 мая 2017г. в 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омещении конгресс-холла торгово-делового центра «Столица» произошло СОБЫТИЕ -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ся необычный грандиозный концерт симфонической музыки с участием молодеж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KYDO»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

ства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KYDO» - это объединенное английское название сводн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оркестра, каждая буква расшифровывается как корееан (корейский)янг (молодежный) дрим(мечта) оркестр. В полном составе коре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Холста «Сюита» и венгер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Бела Барток «Румынские народные танцы». Ребята оркестра «KYDO» исполнили музыка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молодого дирижера из города Хам-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и Дюн У.

Ответно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детским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были исполнены также два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я – С.Прокофьев «Танец рыцарей» из балета «Ромео и Джульетта» и А.Хачатурян «Вальс», музыка к драме М.Лермонтова «Маскарад». Затем юные музыканты объединились в один единый музык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и совместно исполнили на «бис» произведения И.Штрауса «Марш Радецкого» и народную корейскую песню «Золотая гора Гымгансан», поочередно меняясь дирижерами.

Самым значимым в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для ребят «KYDO» было участие во втором отделении концерта в совместном исполнен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и хорового коллекти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музыкаль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австрий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Вольфганга Амадея Моцарта «Реквием» (траурная заупокойная месса). Сводным коллективом были исполнены 8 из 14 частей знаменит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Совместное звучание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и больш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хора придавало произведению масштабность и передавало все оттенки этого знаменит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В знак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прекрасную классическую музыку переполненный зал долго аплодировал музыкантам.

Надеемся, что такие полномасштаб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вместные концерты посредством музыки еще больше объединят культуру двух народов, подружат и сблизят детей России и Кореи. Мы будем ждать новых встреч с творчеством молодежного оркестра «KYDO»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и Ок Пун  
Фото Ли Е Сик



этого тоже проводились подобные объединенные концерты в 2015 и 2016 гг. Но отличие этого, 2017 года, было в том, что в этот раз на од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были собраны все лучшие музык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областно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в составе 68 дете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и дирижер Виктория Юхмано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одско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в составе 28 музыкантов (дирижер Тигран Ахназарян) и академический х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который составил около 50 чел. (хормейстер - Павел Гололобов). Это был Третий совместный концерт в рамках общегородск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ная столица». Концерт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 фондом «Надежда» Ассоциации верховой езд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правлением культуры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участием Министер-

оркестр «KYDO» насчитывает около 200 ребят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20 сельских провин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ые обучаются в музыкальных классах в простых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ах Кореи. Такие музыкальные классы во всех 20 сельских школах организованы с 2010 года Корейским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 Фондом «Надежда» при Ассоциации верховой езды Кореи с целью обучать музыке и искусству детей отдаленных сельских местностей республики. Стимулом для успеш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лужит поездка на гастроли за пределы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на Сахалин.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таких гастролях могут только те дети, которые успешно пройдут серьезный отбор на лучшее исполн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повезло 25 учащимся из различных провинций в возрасте от 11 до 17 лет. На Сахалин они привезли музыку англий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Густава Теодора

## В школе «Манчен» закончился учебный год

27 мая в школе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анчен» г. Холмска прошел праздник, посвященный окончанию учебного года. Вот и закончился еще один учебный год. Год, в течение которого ребята изуча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знакомились с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аздник получился очень красивым, ярким, насыщенным. Сколько самых разных талантов, приобретенных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в школе, знаний и умений они показали на празднике! Это стихи, песни,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е сценки и игра на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он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Торжественное вручение сертификатов об окончании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школе по об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анчен» стало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которая сложилась еще с момента ее открытия.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господин Ким Джу Хван лично вручил ребятам сертификаты 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Много теплых слов с окончанием учебного года прозвучало из у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Холм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Ен Суй. От имени ХМ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ыли вручены грамоты и подарки.

Закончился праздник чаепитием.

Ли Тин Сон



## Не вс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оказались готовы к началу летней кампании по отдыху и оздоровлению детей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селекторного совещания с главами районов, которое прове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Оно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детей во время предстоящих каникул. Если выявленные недочеты не будут устранены до начала летнего сезона, то в отношении ответств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будут предприняты самые жесткие меры.

Как было отмечено на совещании, ещ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глава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задачу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отдыха, оздоровления и занятости детей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летнего периода. Вопрос сохраняет актуальность и в этом году.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поступившим из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2017 года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325 лагерей. Кроме того, будут действовать лагеря с днев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на базе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профильные лагеря, лагеря труда и отдыха.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летней занятости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в текущем году агентством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органам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276 трудовых бригад с охватом более 3 000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В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Республике Крым и Севастополе,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500 детей, из них не менее 150 дет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Кроме того, 150 детей по региональной квоте проведут летние каникулы на базе всероссийских детских центров «Океан», «Орленок», «Смена» 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детском центре «Артек». Это мера поощрения за победу в областных, всероссийск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ак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Общий охват детей всеми видами отдыха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по прогнозным данным составит около 3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месте с тем, не вс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оказались готовы к началу кампании по летнему отдыху и оздоровлению детей.

Так, по информации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и Мурашовой,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лагеря с днев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только в июне, в этом же районе на август не запланирована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фильных, палаточных лагерей и лагерей труда и отдыха.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гнозируемый охват детей организованными формами отдыха, оздоровления и занятости детей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составит только 22,5%. Это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среднеобласт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46,6%). Аналогичная ситуация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 охват 37,2%; Курильском - 36,5% и Охинском - 35,2 %.

-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читает такую позицию недопустимой и предлагает главам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принять исчерпывающие меры по выполнению поруч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организовать отдых, оздоровление и занятости детей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летнего периода.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охват организованными формами отдыха, оздоровления и занятости детей-сирот, воспитывающихся в семьях опекунов и приемных родителей, а также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состоящих на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учетах, - отметила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На совещании была обозначена и другая проблема, которая относится к компетенции глав районов. Ни в одн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не обеспечена в надлежащей мере обработка зеленых насаждений от клещей. А значит, есть угроза заболевания детей боррелиозом или клещевым энцефалитом.

- Организация отдыха детей – это очень серьезная работа и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должны взять её под личный контроль, каждый день отслеживать её выполнение, - подвела итог совещанию Вера Щербина.

##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2017 году будут достигнуты все цел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п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Указов Президента РФ

Такое заявление сдел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трехсторонней комиссии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оциально-трудовых отношений.

Как долож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Карпенко, по данным Росста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спешно справляется с задачами по повышению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отдельных категорий работников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Указо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т 7 мая 2012 года. Достигнуты все цел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2016 года.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и сегодня занимаются решением этих вопросов. По данным на 1 мая, уже достигнуты установленные на 2017 год плановые показател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педагогов, работающих в школах, детских садах, а также с детьми-сиротами, мастеров начальн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редн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и соци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а повестке дня - повышение заработка педагог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аботников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младш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а также врачей. Например,

средня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специалистов с высшим медицинск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а 59,6 процента превышает среднемесячную начислен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наем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организациях, у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в регионе за январь - апрель 2017 года. К концу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на должна быть выше ее уже на 80 процентов.

- Эта задача, как и достиж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ных целе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п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всех категорий работников, упомянутых в Указах Президента,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обязательно выполнена, - подчеркнула Вера Щербина. – Необходимые средства в бюджете региона предусмотрены.

Участники трехсторонней комиссии также подвели итоги смотра-конкурса по охране тру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6 году,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о состоянии и причина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травматизма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региона, 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в сфере трудовых правоотношений, и развитии социаль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коллективно-договор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оциально-трудов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аботниками 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 Память жертв нефтегорского землетрясения поч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д проливным дождем сотни человек пришли 28 мая к мемориалу жертвам разрушительной стихи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Траурная церемония проходила в скорбной тишине, без речей.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погибш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Собравшиеся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Архиепископ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Тихон отслужил заупокойную литию. Цветы к памятнику жертв трагедии возложили губернатор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азрушительное землетрясение в северном поселке Нефтегорск произошло ночью 28 мая 1995 года. Стихия унесла жизни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Почти все дома были разрушены до основания. Из завалов удалось спасти чуть более четырехсот человек. На месте трагедии теперь находится мемориал памяти нефтегорцев и часовня, куда каждый год приезжают выжившие, чтобы вспомнить близких и друзей. Плиты с именами погибших стоят на местах обрушившихся в ту ночь многоэтажек.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состоялась традиционная областна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Весна Сахалина – 2017»

Свои товары на ней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200 участников. Среди них -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крестьянские, фермерские и личные подсобные хозяйства, садоводы и огородники, предприятия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а также торг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реализующи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инвентарь,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и расходные материалы для садоводов-огородников.

У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окупателей, пришедших на площадь Победы, глаза разбегались от обилия и разнообразия товаров. На прилавках -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дукции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хлебобулочные, мясо и молоко, рыба в разных видах. Для тех, кому стало жарко - безалкогольные напитки и квас.

Новинку, посвященную 70-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ли кондитеры из Холмска – торт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японского зеленого чая. На ярмарке он пользовался повышенным спросом, покупатели быстро разбирали свежую продукцию с оригинальным вкусом. Впрочем,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гостей ярмарки интересовали не только съедобные товары, но и всяческая рассада, семена овощей и картофеля.

- Мы привезли около 200 саженцев,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оргующая декоративными кустами. – Это туя, рододендрон и другие. Ярмарка не работает еще и часа, а мы распродали уже почти треть товара. Спрос очень хороший, люди хотят сделать красивыми свои дачные и приусадебные участки, а не только выращивать на них картошку для пропитания.

- Так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ярмарки –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селян продать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а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 приобрести без излишних наценок качественный товар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у производителя, - сказал, обращаясь со сцены к собравшимся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губернатор – Торговля идет бойко. Это наглядно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подобные формы торговли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ы. Поэтому ярмарочная торговля и у нас в регионе будет только развиваться и расширяться, чтобы отвечать интересам и продавцов, и покупателей.

## Развити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ияет на снижение цен на мясо и овощ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ежемесячно проводится мониторинг цен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 последним данны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 самый медленный рост цен на социально-значимые продукты среди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нна Павленко на совещани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сли сравнить показатели роста цен в апре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имает последнюю - 85 позицию среди все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ибольший рост отмечен в Республике Саха (Якутия),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Чукотском и Камчатском краях. Приморский и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я раздели-

ли 76-ю и 80-ю позиции. 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 на 82-ом месте.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именьшая стоимость сохраняется по мороженой неразделанной рыбе, говядине, мясу птицы и огурцам. Ключевое влияние на ценовые предложения оказывает развити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регионе, увеличение предложений на рынке. Плюс та работа, которую мы ведем вместе с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ами по проекту «Доступная рыба», все это дало свои результаты по стабилизации и снижению цен, - подчеркнула Инна Павленко. - Еще один из ярких примеров - это снижение цен на овощную линейку продуктов. Большинство овощей на рынке теперь наши, сахалинские, в том числе местный картофель и зелень. Это все - результат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их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й, - добавила он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е цены на социально-значимы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в регионе отмечаются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ричина – транспортная удаленность и высокие энерготарифы.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льготного тарифа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для предприятий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и о возмещении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на доставку продуктов в районы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 Проблема неустойчивого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села Бошняково будет решена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частых отключений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жалоб - плохое состояние существующей линии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Ремонт не поможет,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специалисты. Поэтому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кардиналь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й линии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до Бошняково начнется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жителями села.

Многие проблемы, на которые обращали внимание губернатора селяне во время предыдущих встреч, сегодня решаются. Выделены средства на ремонт фасада местного детского сада,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его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сел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тмечается рост рождаемости. Даже возник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здать в детском саду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группу на 20 малышей. Летняя площадка при сельской школе в пору предстоящих каникул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 три смены. Поэтому жители Бошняково могут быть уверены – дети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будут под присмотром, накормлены и заняты полезным делом,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едется ремонт в помещении амбулатории. Цель его – оборудовать дневной стационар, кабинет физиотерапии, и в целом создать нормаль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ациентов и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Дальней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села связаны с развитием градообразу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 Бошняковского угольного разреза и порта. А они планируют наращивать добычу и отгрузку угля.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увеличить трудовой коллектив, привлечь людей для работы вахтовым методом. Для них в селе на базе пустующих помещений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общежития.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Сергей Дорошук рассказал о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на лето работах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села, ремонту фасадов.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по решению бошняковцев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й казны, выделенных в рамках пилотного проекта «Инициативный бюджет», в центре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будет обустроена площадь, которая станет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массовых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Жители села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дняли ряд серьезных вопросов. Например, в Бошняково нет автозаправочной станции. Ближайшая – в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ах километров, в Углегорске. Впроч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осточной горнорудной компании,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ходят угольный разрез и порт, заявили, что готовы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Целый блок вопросов был посвящен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ю. Люди жаловались – стоматолог, как и другие уз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в селе появляется крайне редко. Поэтому пациентам, в том числе и с острой болью, чтобы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приходится отправляться в дальнюю дорогу до Углегорска.

Возмутил селян еще один факт – район почти полгода назад получил автомобиль на базе «Камаза» с комплексом современного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 его помощью жители самых отдаленных деревень могут пройти углубл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Но по неясным причинам,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ая техника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так и не добралась до третьего по размеру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района.

Губернатор счел,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не уделяет достаточного внимания проблемам селян. И поручил организовать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в Бошняково по следующему графику. Стоматолог должен вести прием здесь не реже двух раз в неделю. Выездные бригады специалистов - посещать село как минимум ежемесячно. А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автомобиль должен бывать в Бошняково раз в квартал.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 по озвученным обращениям селян поручил приобрести полноприводный школьный автобус, и решить вопрос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детских кружков в местном клуб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 충북 음성군, 제8회 전국 사할린동포 한마음 대회 개최

사랑과 나눔의 정신문화 축제,  
사할린동포의 만남

(7면에 계속)

올해는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에트노스>예술학교 한민족과 공연단(단장 아.워로호와 제1부교장, 교사 신 올라씨, 최경순 씨외 학생 22명)은 설장구, 부채춤, 갈춤 등 9개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펼쳐 영주귀국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교육국은 양측의 활발한 문화행사 초청과 우호교류를 축하하며 이필용 음성군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유동식 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에트노스>예술학교 공연단은 특별만찬을 베푼 이필용 음성군수에게 크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필용 군수는 "자의가 아닌 타의

로 고국을 떠나 60년 가까이 고생하신 사할린동포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사할린동포를 위한 소중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하은혜 초대가수가 열창한 <사할린아리랑>은 영주귀국한 노인들에게 구소련 정치개방이전의 사할린한인의 삶, 역사를 상기시켰다.

이번 행사에서 유동식 씨와 박정열 씨가 축하공연 사회를 맡았다. 유동식 씨(전 사할린예술단장)의 말에 의하면 <에트노스>예술학교 학생들이 음성군과 파주에서 차질 없이 공연하도록 국악인 목진호 박사가 장구 5개, 북 12개, 징 1개를 준비해주었다. 목진호 박사는 사할린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

회에서 2007- 2009년까지 목국악인은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 파견되어 사물놀이 강사로서 사할린주에 한국 고유의 음악 보존과 보급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현재 그의 제자들이 사할린에서 국악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에트노스>예술학교 학생들은 대구에서도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그 고장에서는 민족통일대구청년협의회(회장 하태균) 청년들이 <에트노스>예술학교 학생들에게 고맙게도 국악기를 제공해주었다고 한다. <에트노스>예술학교 공연단은 30일에 사할린으로 떠나고 무용단은 진도에서 6월 10일까지 무용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 봉사회 500여 명이 아침에 음성에 도착한 사할린동포들에게 정성들여 장만한 푸짐한 조반상을 차려주고, 행사가 마무리되자 귀갓길에 나선 모두에게 간식과 선물까지 챙겨주었다.

8년째 수고를 많이 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와 음성군에 사할린동포들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포 신도시에서 안춘대

전 세계 한인파워!

제5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막!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인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5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29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막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썬디 류, 美 하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현지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 및 한반도 평화 통일 등을 주제 다음달 2일까지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열린다.

올해 포럼에는 11개국에서 총 37명의 한인정치인이 참석했다. 한인 여성 최초의 재미동포 여성정치인이자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썬디 류(60, 여)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이민 2세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한인으로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변겨레(30, 남)아르헨티나 문화부 차관보, 고려인 출신 최초의 3선 의원인 유리 텐의 아들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텐 세르게이(41, 남) 러시아연방 하원의원, 지난해 뉴질랜드 국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발의해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낸 멜리사 리(52, 여) 뉴질랜드 국회의원, 고려인 3세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첫 고려인 선출직 하원의원에 당선된 박 빅토르(59, 남)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원,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샌드라 리(39, 여) 미국 사이프레스 교육위원과 피터 김(34, 남) 미국 라팔마시 시의원 남매 등 참가자의 면면이 화려하다.

개회식은 썬디 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철기 이사장의 환영사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주철기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4번의 포럼을 통해 한인사회의 정치력 강화 및 동포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한인 정치인이 배출되었고, 재외동포들의 정치 활동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인 정치인들이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번영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핵 위기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칼미키아 공화국 엘리스타 시의원 포럼 참가자인 김 메르겐의 축하공연을 가진 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철기 환영만찬이 열렸다.

포럼 2일차인 30일부터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주요 포럼이 진행되었다.

30일 오전에 진행되는 <정치인포럼 1>에서는 '북핵 위기 대응과 새로운 동북아의 구축'을 주제로 북핵 위기 상황에서의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발제자로 나서 강연을 한 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사회는 김범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맡았다.

오후에 진행된 <정치인포럼Ⅱ>에서는 현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인 썬디 류 의원의 진행으로 내부회의가 열렸다. 동 회의에서는 2018년 포럼 준비와 함께 차세대 정치인 발굴을 위한 논의 및 차기 임원진 선출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세 번째 포럼은 31일부터 열리는 제주포럼과 연계해 진행되었다. 제주국제 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진행된 <정치인포럼Ⅲ>에는 한반도 전문가 발비나 황 美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와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평화 통일을 위한 글로벌 한인공동체의 기여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패널로는 썬디 류 의원, 박 빅토르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원, 손기웅 통일 연구원장,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1

말하기 대회를 성공의  
기회로 삼자

(전화의 계속)

읽기 연습 Чтение

※ 다음을 공문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문서번호: ○○시 건축과 - 09001

발 신: ○○시장

수 신: ○○ 사 사장

참 조: 사업부장

제 목: 민원 사항 통보

1. 평소 우리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구 ○○동 133번지 외 3필지상 주택 재건축 사업장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사업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통보하오니,

3. 인근 주민의 불편 사항 및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 철저 등 민원 해결에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시장 (직원)

1. 시청에서 00회사에 공문서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택 재건축 사업장 인근의 주민들의 청찬입니다.

② 주택 재건축 사업장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통보입니다.

③ 주택 재건축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협조의 내용입니다.

④ 주택 재건축 사업장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사업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시청에서 회사로 통보한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계속적으로사업장에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주어도 된다.

② 인근 주민의 불편 사항 및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 철저 등 민원 해결에 적극 조치를 위한 것이다.

③ 인근 주민의 불편 사항 및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작업 진행을 위한 허가인 것이다.

④ 인근 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도 작업 진행을 위한 통보이다.

3. 회사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① 국제 무역 ② 주택 재건축

③ 주택 신축 ④ 화물업

과제 학습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1. '-(으)로 삼다', '-(으)로 인해서, -(으)로 인하여', '-(으)로 따라서, -나에 따라서', '-(으)로 직하다', '-(으)면 일어나 -겠어요?'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을 두 개씩 만드세요.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7) \_\_\_\_\_

(8) \_\_\_\_\_

(9) \_\_\_\_\_

(10) \_\_\_\_\_

2. 자유 주제로 3분 스피치를 준비하고 학우들 앞에서 발표하십시오.

(끝)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Сахалинцу пришлось прятаться от медведя в киоске

Медведь едва не напал на человек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26 мая, сообщила главный лесничий местного лесничества Наталья Долганова.

Это произошло рано утром в дачном посёлке Нечавка, расположенном между Корсаковым и Пригородным.

Местный житель встретил хищника рядом с дачными участками. Увидев зверя, он пустился бежать и укрылся в киоске, который к тому времени уже был открыт. По его словам, косолапый походил рядом с киоском, покопал землю, после чего ушёл. В ларек он ломиться не стал.

Сказать о возрасте хищника лесничие пока не могут, со слов очевидца - он был среднего размера. Долганова говорит, что следы на месте были, но нечёткие, так как почва очень сухая.

- В 08:00 сообщение о происшествии поступило в полицию, оттуда - в Единую дежурно-диспетчерскую службу, а уже ее сотрудники переадресовали информацию нам. Отстрел зверя будет крайней мерой, только если он поведёт себя агрессивно. Сотрудники лесничества уже поговорили с дачниками, дали советы по мер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лучае встречи с хищником, - рассказала Долганова.

##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들, 무료 피트니스 수업에 초대

5월 3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청년이니셔티브 센터의 <소셜 피트니스>프로젝트 제 5기가 시작되었다. 시즌 개막을 위해 조직자들은 모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8시 겨울종목 스포츠학교 옆에 있는 배구장에서 스크리닝검진이 펼쳐졌다. 희망자들은 엑스프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여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피부 상태도 검사하고 피부과·종양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19시 건강한 삶을 원하는 사람 모두가 프로젝트 지도자들의 체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전례에 따라 시즌 시작할 때는 스포츠경기가 이뤄진다.

청년이니셔티브센터의 <소셜 피트니스>프로젝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이미 4년째 실시되고 있다. 그 동안 스포티한 생활 조성에 수백 명이 섬주민들이 참여했다. 연령과 신체적 준비조건과는 상관없이 훈련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야외 훈련 시에는 적절한 의복과 식수가 필요하다.

올해 프로젝트 지도자팀도 확대되었다. 세르게이 브쭈린, 타치야나 고리나, 이리나 텐, 리아나 파카제, 안나 정 사범과마리아 게르베르, 빅토르 자르치코브와 아나스타시아 사프로노와가 함께했다.

훈련 일정: 겨울종목스포츠학교 옆에 있는 배구장(웬스카야 거리, 5)

월, 수, 금 19시부터 20시까지

제8중학교 운동장-월, 수, 금 19시부터 20시까지.

6월 2일부터 수업은 달네예촌에도 시작한다. 행사장은 모스콥스카야 거리에 있는 운동장에서 이뤄진다고 청년이니셔티브센터의 홍보실이 전했다.

##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тия фитнесом

31 м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пятый сезон проекта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центра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Специально к открытию сезон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разнообразную программу.

Так, в 18:00 на волейбольном корте у школы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улица Венская, 5)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площадки по скрининговому обследованию организма.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смог пройти экспресс-тест и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от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функциональному состоянию организма, пройти диагностику состояния кожи и консультацию дерматолога-онколога.

В 19:00 все любител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с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зарядке от инструкторов проекта. По традиции в начале сезона пройдут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Проект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центра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действу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четвертый год. За это время к спортивн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отни островитян.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тренировок может каждый,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озраста и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Для занятий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понадоби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одежда и вода.

В этом году расширилась команда инструкторов проекта. К Сергею Втюрину, Татьяне Гориной, Ирине Ден, Лиане Пхакадзе, Анне Тен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Мария Гербер, Виктор Зарчиков и Анастасия Сафронова.

Расписание тренировок:

волейбольный корт у школы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улица Венская, 5) — понедельник, среда, пятница с 19:00 до 20:00;

Стадион у школы №8 — понедельник, среда, пятница с 19:00 до 20:00.

Со 2 июня занятия начнутся и в Дальнем.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 спортплощадка на улице Московско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ЦМИ.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새고려신문 살리자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 Покупай онлайн



|                                                                                                                                                                                        |                                                                                                                                                   |                                                                                                                                                                                                                                                                                         |                                                                                                                                                                              |                                                                                                              |                                                                                                                                                                                                                                                       |
|----------------------------------------------------------------------------------------------------------------------------------------------------------------------------------------|---------------------------------------------------------------------------------------------------------------------------------------------------|-----------------------------------------------------------------------------------------------------------------------------------------------------------------------------------------------------------------------------------------------------------------------------------------|------------------------------------------------------------------------------------------------------------------------------------------------------------------------------|--------------------------------------------------------------------------------------------------------------|-------------------------------------------------------------------------------------------------------------------------------------------------------------------------------------------------------------------------------------------------------|
|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                                                                                                                                                   |                                                                                                                                                                                                                                                                                         |                                                                                                                                                                              |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                                                                                                                                                                                                                                                       |
| Издатель:<br>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br>«Сэ корё синмун»<br>(“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br><br>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br>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r>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br>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br>«Редакция газеты<br>«Сэ корё синмун»,<br>Правительство<br>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br>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br><br>Телефон/факс: 43-59-80,<br>43-72-94, 43-67-85<br><br>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br><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 |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br>«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br>типография»,<br>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br>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br>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br>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br>1949года.<br>Выходит по<br>пятницам<br>50 раз в год.<br>Индекс 53740<br>Тираж 1300 экз. |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br>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br>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br>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br>области.<br><br>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br>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